

한국환경공단-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¹⁾)

해외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한국환경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환경사업 진출 기회 확대
- 국내 건설 회사들의 해외 환경사업 EPC²⁾ 참여 기회 확대
- 해외사업 정보교환 및 유망 해외사업 공동발굴로 개발채널 다변화

- KIND(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, 대표이사 허경구)는 K-eco(한국환경공단, 대표이사 장준영)와 2월 12일(수) 『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』을 체결하였음.
- 이 날 행사는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KIND에서 열렸으며 한국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과 허경구 KIND 사장의 서명으로 체결됨.
- 본 협약 체결을 통해 K-eco와IND는 해외사업 관련 정보교환, 사업 공동 발굴과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등 해외 환경분야 사업개발 및 수주를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합의함.
- 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2018년 국내기업의 해외 민관협력사업 (PPP, Public-Private-Partnership)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출범하였음
- 인프라 분야(교통, 도시개발, 전력, 산업플랜트, 수자원 및 환경 등) 전방위 진출을 지원하고 있고 해외 환경분야 투자 역시 KIND의 주요 사업 영역임.
- K-eco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2010년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된 이후 양 기관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환경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.

1) 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&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

2) Engineering, Procurement, Construction

- 세계 각국의 환경시설 설치, 환경기술컨설팅,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환경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환경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음
- 허경구 KIND 사장은 한국환경공단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최근 한층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, 수처리 사업 등 환경 분야 사업개발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, 동시에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사업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을 밝힘.